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지능과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임 영 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본 연구는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지능과 긍정정서를 포함한 3경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목적을 위해 친화성 척도, 사회지능 척도,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등을 대학생 202명(남 96, 여 106)에게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친화성 수준은 높은 사회지능을 예측하였고, 높은 사회지능 수준은 긍정정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3경로 매개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임영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Fax: 053-850-6369, E-mail: ylim@daegu.ac.kr

친화성(agreeableness)은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개방성과 함께 5요인 성격특질 중 하나로서 친절하고 공감적이며 협조적인 동시에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을 의미하고 협동적 대인행동과 원만한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친화성 점수에서 높은 값을 얻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들을 정직하고 예의바르며 믿을만하다고 평가한다(이선희, 최영임, 2011; Thompson, 2008).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의 전반적 삶에 관해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임영진, 2012; Diener, 1984).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갖는 유익은 분명하고 다양하여,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향후 갖게 되는 직업 장면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에 원활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수진, 임영진, 2013; Koivumaa-Honkanen et al., 2000;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아울러,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아동과 청소년일수록 다양한 종류의 비행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고, 학업성취도와 학업동기가 높으며, 졸업이후 사회생활에 보다 능숙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백수진, 임영진, 2013; 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1; Valois, Zullig, Huebner, Kammermann, & Drane, 2002; Zullig, Valois, Huebner, Oeltmann, & Drane, 2001).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왔다. 친화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대부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중간 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DeNeve & Cooper, 1998; Steel, Schmidt, & Shultz, 2008),

대인간의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와 친화성의 관련성은 보다 컸다(Benet-Martínez & Karakitapoglu-Aygün, 2003). 그렇지만 친화성이 왜 삶의 만족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다. 다만 친화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된 바 있다(Nettle, 2007). 첫째,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행하는 도움행동은 수혜자의 긍정정서뿐만 아니라 도움 제공자의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이다. 둘째,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높은 사회지능이 스스로의 긍정정서를 유발하도록 이끌 것이다. 상기의 제안은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긍정정서’와 ‘사회지능’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친화성의 성격특질은 5요인 성격특질을 구성하는 여타 성격특질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과 진화적 특성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Livesley, Angleitner, Riemann, & Vernon, 2002). 장기간의 반복측정 결과 친화성의 수준은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중대한 삶의 변곡점을 통과하지 않는 한 친화성의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불가변(不可變)의 원격(distal) 설명변인으로서 친화성을 상정할 때 친화성의 영향을 받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가변(可變)한 근접(proximal) 설명변인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의 증진과 행복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학적 개입방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의 근접 설명변인이자 삶의 만족도와 친화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발견하는 것의 가치는 지대하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지능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다.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정서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권석만, 2008; Peterson & Seligman, 2004). 교육장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지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증진된 사회적 기능과 정서적 유능성이 향후 청소년과 아동의 발달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Durlak, Weissberg, & Pachan, 2010). 대규모의 매개효과 연구에 의하면 성격 5요인(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을 상위 구성개념으로 상정하고 성격 5요인 아래에 사회지능의 구성개념을 위치시킨 위계적 구조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변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orro-Premuzic, Bennett, & Furnham, 2007; Furnham & Christoforou, 2007). 상기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친화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회지능을 보고할 것이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자들은 긍정정서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다. 긍정정서(positive affect)는 환경에 대한 유쾌(有快)한 관여(pleasant engagement) 수준을 뜻하고, 신남·기쁨·즐거움 등의 개별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환경에 대한 불쾌(不快)한 관여(unpleasant engagement) 수준을 의미하는 부정정서(negative affect)에 대응하는 개념이다(김은영, 2004; Clark, Watson, & Leeka, 1989). 친화성의 성격특질을 지닌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보다 크며 상호 의존적 자기관을 지닌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정서에 미치는 친화성의 영향은 더욱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slam, Whelan, & Bastian, 2009; Panaccio & Vandenberghe, 2012). 정서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정서경험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iu, Wang, & Li, 2012). 또한 긍정정서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정서의 체험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효과를 상회하는 연구결과가 속속 답지하고 있다(Kuppens, Realo, & Diener, 2008). 상기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긍정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할 것이다.

몇몇 이론가들은 사회지능과 같이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긍정정서를 고양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고양된 긍정정서가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e.g., Zeidner, Matthews, & Roberts, 2012).

이 가설에 의하면, 사회지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부정정서에 대처하는 능력에 더해 긍정정서를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므로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서 긍정정서를 체험하고 이를 유지하며 증폭시키는 데 익숙하다. 사회지능이 긍정정서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상관을 지닌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제안과 일치한다(Kong, Zhao, & You, 2012; Koydemir, Şimşek, Schütz, & Tipandjan, 2013;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Schutte & Malouff, 2011). 상기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회지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긍정정서를 보고할 것이다.

선행연구의 경험적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친화성이 사회지능과 긍정정서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친화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회지능 수준을 보이고, 이는 높은 수준의 긍정정서로 이어지며, 결국 높은 삶의 만족도로 귀결된다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그림 1).

가설 4. 사회지능과 긍정정서가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심리학 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202명(남자 96명, 여자 106명)이다. 참여자들 중 1학년은 56명, 2학년은 22명, 3학년은 88명, 4학년은 36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 평균(mean)은 21.49($SD = 2.67$)세였고, 범위(range)는 17세부터 29세였다.

측정도구

5요인 성격검사(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5요인 성격검사는 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등의 5요인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1999)가 개발한 50문항의 척도로서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소검사 중 친화성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친화성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화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유태용 등, 2004)에 의하면, 친화성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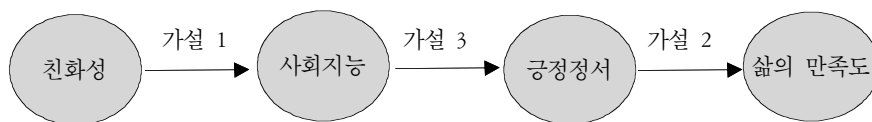


그림 1.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모형

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이었다.

VIA 성격강점검사(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VIA-IS)

VIA-IS는 개인의 성격강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작하였다. VIA-IS는 24개의 하위강점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지능 소검사만을 사용하였다. 사회지능 소검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5) 상에서 평정한다. 가능한 사회지능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능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였다. VIA-IS는 본질적으로 자기 보고형 검사이므로 이를 통해 측정된 사회지능의 구성개념은 피검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차원의 것으로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측정되는 사회지능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국판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K-PANAS)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20문항의 척도로서 Lim, Kim, Yu와 Kim(2010)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2요인(각 10문항)으로 구성되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 소검사만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긍정정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정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

구(Lim et al., 2010)에 의하면, 긍정정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이었다. K-PANAS는 자기 보고형 설문지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K-PANAS를 통해 측정되는 긍정정서의 구인은 어떤 개인의 행동과 외형을 평가하여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내면의 모습으로서의 긍정정서를 뜻한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삶의 만족도 척도는 개인의 전반적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서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매우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이었고(임영진, 2012),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8이었다.

연구 절차

본 설문지의 작성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는 연필이나 펜을 사용하여 척도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자가 동석하였다.

대안적 모형들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이에 여러 대안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 이외에 두 가지 대안모형을 상정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대안모형 1. 첫 번째 대안모형은 친화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긍정정서 수준을 나타내고,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지능으로 이어지며, 결국 높은 삶의 만족도로 귀결된다는 경로를 지닌다.

대안모형 2. 두 번째 대안모형은 친화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회지능 수준을 보이고, 이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거쳐 높은 긍정정서로 이어진다는 경로를 갖는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18.0과 Mplus 6.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된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이 시행되었다.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지능과 긍정정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의 경우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MED3C SPSS macro(Hayes, Preacher, & Myers, 2011)를 사용하여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의 간접효과를 산출한다.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5000 bootstrap sample)을 사용한다.

결 과

사전분석

변인들의 기초통계량과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서 제시되었다. 친화성과 사회지능($r = .48, p < .001$), 삶의 만족도와 사회지능($r = .41, p < .001$),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도($r = .47, p < .001$), 사회지능과 긍정정서($r = .43, p < .001$), 친화성과 긍정정서($r = .34, p < .001$)는 모두

표 1.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및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N = 202)

	평균(표준편차)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
친화성	37.20(5.01)	-			
사회지능	34.64(5.49)	.48*	-		
긍정정서	29.70(7.51)	.34*	.43*	-	
삶의 만족도	19.92(6.09)	.25*	.41*	.47*	-

* $p < .001$

중간(medium)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r = .25, p < .001$)는 작은(small)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사회지능과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때, CFI

는 .964, TLI는 .941로서 .90이상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고, RMSEA 또한 .078로서 .08이하의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첫 번째 대안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두 번째 모형 역시 RMSEA 지표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연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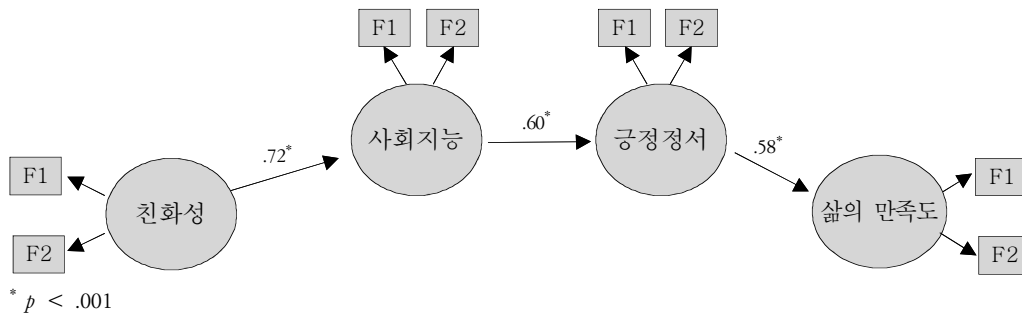


그림 2.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표 2.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N = 202)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37.703*	17	.964	.941	.078
대안모형 I	75.220*	17	.899	.834	.130
대안모형 II	49.385*	17	.944	.908	.097

* $p < .001$

표 3. 사회지능과 긍정정서의 Bootstrapping 간접효과 검증 (N = 202)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전체	.2719	.1630	.4006
사회지능	.0996	.0315	.1780
긍정정서	.0878	.0140	.1737
사회지능과 긍정정서	.0845	.0406	.1425

*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함(Hayes et al., 2011).

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친화성과 사회지능의 관계($\beta = .72, p < .001$), 사회지능과 긍정정서의 관계($\beta = .60, p < .001$),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beta = .58,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3과 같이, bootstrapping 기법(5000명 추출)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사회지능과 긍정정서가 매개하는 간접효과(추정치 = .0845,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능과 긍정정서가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사회지능이 친화성과 긍정정서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긍정정서는 사회지능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3경로매개모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화성이 사회지능을 유의하게 예언하여 가설 1이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opes, Salovey, & Straus, 2003; Petrides et al., 2010). 두 번째, 긍정정서가 삶의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여 가설 2가 지지되었으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Kuppens et al., 2008; Schimmack, 2008) 세 번째, 사회지능이 긍정정서를 유의하게 예언하여 가설 3 또한 지지되었으며 이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다(Koydemir et al., 2003; Schutte & Malouff, 2011).

변인 사이의 개별적 관계에 대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제안되었던 3경로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지능과 긍정정서 수준은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시에 사회지능은 친화성과 긍정정서 사이에서, 긍정정서는 사회지능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 이러한 결과는 사회지능과 긍정정서를 경유하여 친화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고, 친화성 수준의 증가가 사회지능 수준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사회지능 수준의 증가는 다시 긍정정서 수준의 증가에 정적인 역할을 하며, 증가된 긍정정서는 곧 삶의 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 등의 종합적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친화성, 사회지능,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 등의 변인과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을 한데 결집하여 보다 확장되고 전체적인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두드러진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검증되고 확장평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담자의 긍정정서를 고양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지능 관련 기법을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한다(Nelis, Quoidbach, Mikolajczak, & Hansenne, 2009).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가 비록 친화성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능 관련 기법을 충실히 익힌다면 삶의 만족도 향상과 긍정정서 고양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본 연구의 결과

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임영진, 2013).

본 연구는 약점과 한계점을 동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모두 자기보고 설문지라는 데에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이 놓여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척도의 형식적 유사성(예, 리커트형, 자기보고형, 지필형)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었거나 연구 참가자가 자기고양적인 반응왜곡을 나타내었을 수 있다. 전체 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령을 지녔고 두드러지게 높은 학력을 지닌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려우며 다른 대상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이 때문이다(임영진, 2013).

상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가치는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끌고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었다는 점에 있다. 친절하고 공감적이며 협조적인 동시에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지능의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긍정정서를 향유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친화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추가될 수 있고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인의 발견이 필요하다. 자존감(self-esteem),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친화성 이외의 다른 5요인 성격특질 등이 포함된 조절변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후속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신경성과 성실성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화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자신의 도움행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고,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접했을 때 부정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하며,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인해 일터와 생업장면에서 타인의 인정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친화성의 특질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김은영 (2004). 감정동사 유의어의 의미 연구. *한국어어미학*, 14, 121-147.

백수진, 임영진 (2013). 친절한 청소년은 왜 행복할까?: 친절성,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1(2), 25-36.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이선희, 최영임 (2011). 아동용 간편 5 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43-569.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임영진 (2013). 마음챙김과 삶의 만족도의 관

- 계: 정서균형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인간 이해*, 34(2), 229-239.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Benet-Martínez, V., & Karakitapoglu-Aygün, Z. (2003). The interplay of cultural syndromes and personality in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comparing Asi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1), 38-60.
- Chamorro-Premuzic, T., Bennett, E., & Furnham, A. (2007). The happy personality: Mediation role of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633-1639.
- Clark, L. A., Watson, D., & Leeka, J. (1989). Diurnal variation in the positive a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13(3), 205-234.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2), 19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rlak, J. A., Weissberg, R. P., &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3-4), 294-309.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 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Furnham, A., & Christoforou, I. (2007). Personality trai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multiple happines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3), 439-462.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J. Deary, F. De Fruyt, & F. Ostendorf (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pp.7-28), Tilbu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Haslam, N., Whelan, J., & Bastian, B. (2009). Big five traits mediate associations between value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1), 40-42.
- Hayes, A. F., Preacher, K. J., & Myers, T. A. (2011).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E. P. Bucy & R. L. Holbert (Eds.),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pp.434-465), New York: Routledge.
- Jang, K. L., Livesley, W. J., Angleitner, A., Riemann, R., & Vernon, P. A. (2002).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covariance of facets defining the domain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1), 83-101.
- Koivumaa-Honkanen, H., Honkanen, R., Viinamäki, H., Heikkilä, K., Kaprio, J., & Koskenvuo, M. (2000). Self-reported life

- satisfaction and 20-year mortality in healthy Finnish adul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2(10), 983-991.
- Kong, F., Zhao, J., & You, X. (2012).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8), 1039-1043.
- Koydemir, S., Şimşek, Ö. F., Schütz, A., & Tipandjan, A. (2011). Differences in how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affect balance versus social support in India and German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1), 51-66.
- Kuppens, P., Realo, A., & Diener, E. (2008).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 across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66-75.
- Lim, Y. J., Yu, B. H., Kim, D. K., & Kim, J. H. (2010).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Psychiatry Investigation*, 7(3), 163-169.
- Liu, Y., Wang, Z. H., & Li, Z. G. (2012). Affective mediators of the influence of neuroticism and 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7), 833-838.
- Lopes, P. N., Salovey, P., & Straus, R. (2003).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3), 641-658.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Nelis, D., Quoidbach, J., Mikolajczak, M., & Hansenne, M. (2009). Increasing emotional intelligence:(How) is it possi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1), 36-41.
- Nettle, D. (2007). *Personality: What makes you the way you are*. OUP Oxford.
- Panaccio, A., & Vandenberghe, C. (201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e st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47-658.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etrides, K. V., Vernon, P. A., Schermer, J. A., Ligthart, L., Boomsma, D. I., & Veselka, L. (2010). Relationships betwee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Big Five in the Netherlan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8), 906-910.
- Schimmack, U. (2008).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97-123). New York: Guilford.
- Schutte, N. S., & Malouff, J. M. (2011).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1116-1119.
- Steel, P., Schmidt, J., & Shultz, J. (2008).

- R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34(1), 138-161.
- Thompson, E. R.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ternational English big-five mini-mark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6), 542-548.
- Valois, R. F., Zullig, K. J., Huebner, E. S., &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iol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5(4), 353-366.
- Valois, R. F., Zullig, K. J., Huebner, E. S., Kammermann, S. K., & Drane, J. W. (2002). Associ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4), 427-440.
- Watson, D., Clark, L.,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Zeidner, M., Matthews, G., & Roberts, R. D. (2012). The emotional intelligence, health, and well-being nexus: What have we learned and what have we missed?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4(1), 1-30.
- Zullig, K. J., Valois, R. F., Huebner, E. S., Oeltmann, J. E., &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substance ab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4), 279-288.

1차원고접수 : 2013. 07. 12.

수정원고접수 : 2013. 12. 13.

최종게재결정 : 2014. 01. 29.

Social Intelligence and Positive Affec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Life Satisfaction

Young-Jin Lim

Daegu University

While agreeableness has received considerable research attention as an important factor for life satisfaction,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mechanisms that mediate its effects. The present research tested three-path mediation model in which social intelligence and positive affect are distally rooted in agreeableness, which predispose people toward life 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202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measures of social intelligence, positive affect, agreeable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upported the predicted three-path mediation model. Higher levels of agreeablenes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ocial intelligence, which in turn affected life satisfaction by increasing positive affec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re considered.

Key words : *Social Intelligence, Positive Affect, Agreeableness, Life Satisfaction*